1.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2.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3. **그림의 떡**
4. **꿈에도 몰랐다.**
5. **눈이 높다.**
6. **발이 넓다.**
7. **입이 무겁다.**
8. **얼굴이 두껍다.**
9. **시작이 반이다.**
10. **고생 끝에 낙이 온다.**
11. **손에 땀을 쥐다.**
12. **귀가 가렵다.**
13. **어깨가 무겁다.**
14.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15.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16.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17. **티끌 모아 태산**
18.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19. **마른 하늘에 날벼락**
20. **번갯불에 콩 볶아 먹겠다.**

A.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것을 모른다.

B.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뜻밖에 입는 재난

C. 아슬아슬해서 아주 긴장하다.

D. 아무리 맘에 들어도 차지할 수 없다.

E. 책임이 무거워서 마음에 부담이 크다.

F. 어렵고 힘든 일이 지나면 뒤에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

G.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

H.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I. 있던 것이 없어져서 불편하더라도 없는 대로 참고 살아간다.

J.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한다고 느끼다.

K.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

L. 어떤 행동을 당장 해치우지 못해 안달하다.

M.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하다.

N.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O. 일이 매우 절박하게 닥치다.

P. 무엇을 선택할 때 좋은 것만 찾는 버릇이 있다.

Q.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

R. 쉬운 일도 여럿이 하면 더 쉬워진다.

S. 비밀을 잘 지킨다.

T.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큰 덩어리가 된다.

**구두쇠**

“이게 뭐예요, 여보?”

생전 처음 구두를 본 아내가 신기한 듯 물었다.

“이게 바로 서양 신이야. 서양사람들이 신는 신발이지.”

김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다.

“참 근사하게 생겼네. 어디 나도 한번 신어 볼게요.”

“안 돼, 안 돼. 얼마나 비싼 신인데 함부로 신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김씨는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구두를 싸서는 장롱 깊숙이 넣어 두었다.

김씨는 매일 구두를 꺼내서 먼지를 닦고 윤을 냈다. 그러기를 몇 달, 보다 못한 아내가 한마디 했다.

“여보, 신발을 샀으면 신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모셔두기만 할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 귀한 신발을 마구 신고 다녔다가는 금세 닳아 없어질 테니 그것도 걱정이었다.

고민에 빠진 김씨는 어느 날 대장간 옆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말의 발굽에 징을 박는 것을 보았다.

‘옳거니, 구두에 징을 박으면 오래 신을 수 있을 거야.’

김씨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구두를 싸들고 대장간으로 달려갔다.

“여보시오, 대장장이 양반. 이 구두에 튼튼한 징 좀 박아 주시오.”

대장장이는 별 우스운 사람 다 보겠다는 듯이 김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렇지만 어찌나 졸라대는지 마지못해 구두에 징을 박아 주었다. 덕분에 김씨는 구두를 남들보다 오래 신을 수 있었다.

구두쇠는 이처럼 구두에 쇠를 붙였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돈이나 물건을 몹시 아끼는 사람을 ‘구두쇠’라고 한다.

또 다른 설이 있기도 하다. ‘돌쇠’, ‘먹쇠’ 할 때처럼 ‘쇠’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구두쇠’ 하면 ‘굳은 사람’을 가리켜, 돈이나 재물에 대해 굳은 마음으로 인색하게 구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맞장구치다**

돌이는 얼이 민속 교실의 대학생 선생님한테서 장구를 배우고 있다. 오늘은 그동안 연습했던 휘모리장단으로 장구를 치기 시작했다.

”덩 덩쿵덕 쿵 덕쿵…….”

“좋아, 아주 잘하는데? 연습을 많이 했구나.”

손뼉과 입으로 장단을 맞춰 주던 선생님은 돌이의 장구 솜씨가 요 며칠 새에 부쩍 늘자 칭찬해 주었다.

“가만 있자, 둘이서 맞장구를 치면 더 신명날 텐데…….”

주위를 살피던 선생님은 마침 한쪽 구석에서 장구를 치고 있는 수연이를 발견했다. 그러고 보니 수연이도 며칠 전부터 휘모리장단을 연습하고 있었다.

“돌이야, 수연이하고 맞장구쳐 볼래? 수연아, 이리 오렴. 돌이랑 같이 해보는 거다.”

“덩 덕쿵덕 쿵 덕쿵……, 얼쑤!”

돌이와 수연이는 서로 장단을 맞춰 가며 장구채를 휘둘렀다. 혼자 장구 칠 때와는 달리 더욱 신이 나고 어깨춤까지 절로 나왔다. 그러다 돌이는 흥이 넘쳐 자리에서 일어나 팔짝팔짝 뛰며 더욱 흥을 돋웠다.

풍물놀이를 할 때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치는 장구를 맞장구라고 한다. 맞장구를 치려면 서로 호흡이 맞아야 틀리지 않고 잘 칠 수 있다. 그래서 남의 말에 동조하거나 부추기는 것을 ‘맞장구치다’라고 한다.

휘모리장단: 판소리 등의 장단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처음부터 급하게 휘몰아 부르는 장단.

**청개구리**

소띠, 양띠, 닭띠, 용띠, 토끼띠, 쥐띠, 호랑이띠, 뱀띠….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띠를 갖고 태어나지. 그런데 돌이의 띠는 청개구리 띠란다. 그런 띠가 어디 있느냐고? 여기 있단다.

“돌이야, 뭐 하니? 어서 밥 먹지 않고.”

“잠깐만요, 엄마. 이 만화책 조금만 더 보고요.”

“돌이야, 숙제 다 해 놓고 놀아야지.”

“이거 새로 나온 전자오락 게임인데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조금만 더 하고 숙제할게요.”

“돌이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내일은 일요일이잖아요. 이 만화 영화 마저 다 보고 잘래요.”

돌이가 왜 청개구리띠인지 알겠지?

옛날에 청개구리가 한 마리 살았는데, 엄마 청개구리 말을 지독하게도 안들었어. 동으로 가라고 하면 서로 가고, 산으로 가라고 하면 바다로 가고, 항상 거꾸로 행동했어.

그러다가 엄마 청개구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지.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죽으면 냇가에 묻어 달라고 했어. 그러면 반대로 산에다 묻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엄마 청개구리가 죽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 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하여 엄마 청개구리를 냇가에 묻었지.

그 뒤부터 아들 청개구리는 장마가 지거나 큰 비가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걱정이 되어 슬프게 울었다고 해.

이처럼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매사에 엉뚱한 일만 저지르는 사람을 가리켜 ‘청개구리 같다’고 한단다.

**파김치**

“엄마, 배고파요. 밥 빨리 주세요.”

밖에서 놀던 돌이와 동이가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여느 때 같으면 ‘얼른 손부터 씻고 밥 먹어야지’ 하며 내다봤을 엄마가 오늘은 기척이 없다.

안방 문을 열어 보니 엄마는 이불도 깔지 않고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엄마, 배고프다니까요!”

동이가 엄마를 흔들며 투정을 부렸다. 그래도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누워 있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이번에는 돌이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그제야 엄마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가 무슨 로봇인 줄 아니? 집에선 온통 어질러 놓기나 하고, 밖에선 빨랫감만 만들어 오기나 하고 말이야.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하느라 완전히 기운 빠져서 파김치가 됐다고.”

돌이는 뜨끔해서 흙이 묻어 더러워진 옷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엄마,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앞으로 옷도 깨끗이 입고 제 방 청소도 알아서 할게요.”

동이도 들고 있던 장난감 총을 내려놓고 엄마에게 달라붙었다.

“그럼 난 엄마 다리 주물러 드려야지. 다리를 죽 펴세요, 어마마마!”

‘파김치’란 파로 담근 김치다. 파는 원래 잎이 빳빳하고 기운이 세어 만지면 톡톡 부러지지만, 소금기와 함께 여러 양념을 해 두면 서서히 기운이 죽어 부드럽게 된다.

처음에는 힘이 있어 건강하던 사람도 일을 많이 하거나 오래 하면 몸이 나른해지고 행동도 느려지게 된다.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힘이 들어 기운이 쭉 빠진 것을 가리켜 ‘파김치’가 되었다고 한다.

**한글**

돌이네 삼촌이 외국 유학 생활 동안 알게 된 외국인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다.

“와, 외국 사람이다!”

돌이는 노랑머리의 외국 사람을 직접 집에서 만나 보게 되자 저도 모르게 소리부터 질렀다.

삼촌은 돌이에게 알프라는 독일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다. 삼촌과 알프는 돌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가끔 종이에다 써 가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뭐라고 썼는지 궁금해진 돌이가 슬쩍 넘겨다보았다.

“삼촌, 이건 영어야, 독일어야?”

“둘 다야. 삼촌이 독일어가 서툴러서 영어도 섞어 가며 쓰는 거야.”

“나도 알프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영어나 독일어를 배우는 것보다 알프가 한국어 배우는 게 더 쉽지 않을까?”

“하긴,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세계적인 글이라고 하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했는데,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란 뜻이란다.”

“그럼 ‘한글’이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는데?”

“한글 학자인 주시경 선생님이 붙이신 말이야. 우리 ‘한글’은 가장 큰 글, 오직 하나인 좋은 글, 가장 바른 글이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

삼촌은 알프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래, 돌이가 영어나 독일어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처럼 훌륭한 한글을 알프더러 한번 배워 보라고 하는 것도 좋겠다.”

**개밥에 도토리**

돌이네 뒷마당에는 떡갈나무가 한 그루 있다. 올해도 무성한 떡갈나무 이파리 사이로 도토리가 많이 열렸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어느 밤, 도토리 나가 바람을 따라 낙엽이 많이 쌓인 풀숲에 툭 떨어졌다. 내년 봄이면 이 작은 도토리에서 떡갈나무 새싹이 날 것이다.

떡갈나무 잎이 세찬 바람에 다시 크게 흔들렸다. 이번에는 도토리 몇개가 한꺼번에 떨어졌다. 어떤 것은 아까 떨어진 도토리처럼 낙엽이 많이 쌓인 풀숲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저쪽 담장 밑까지 굴러갔다.

동그랗게 생긴 작은 도토리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야호! 나도 밑으로 내려간다!

똑, 도르르르……. 동그란 도토리는 마치 단단한 철판에 엉덩방아를 찧은 것 같았다. 그리고 어질어질할 만큼 온몸이 뱅글뱅글 돌았다.

동그란 도토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휴, 하필이면 개 밥그릇에 떨어질 게 뭐람.”

돌이네 멍멍이의 밥그릇 안에 떨어진 동그란 도토리는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다시 한 번 바람이 불어 개 밥그릇을 뒤집어주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어느덧 바람이 잠잠해진 새벽하늘에는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자 돌이가 먹다 남은 음식을 가져와 개 밥그릇에 쏟았다.

“킁킁, 이건 뭐야. 웬 못생긴 게 밥 먹기 불편하게 떡 버티고 있담.”

멍멍이는 동그란 도토리만 남겨두고 밥을 모조리 먹어 치웠다. 멍멍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동그란 도토리는 날마다 개 밥그릇에 외롭게 남아 있었다.

개들은 밥그릇에 떨어진 도토리를 먹지 않는다. 밥만 먹기 때문에 결국 밥그릇에는 도토리만 남게 되는데, 그 모양이 마치 도토리가 따돌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럿 가운데 끼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개밥에 도토리’라고 한다.

**골탕 먹다**

“꾀돌아! 꾀돌이 어디 있느냐?”

꾀돌이는 박 대감이 부르는 소리에 득달같이 뛰어왔다.

“부르셨어요, 대감마님?”

“아니, 골탕을 끓여 오라고 이른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게야?”

박 대감은 얼른 골탕을 내오지 않는다고 닦달했다.

골탕은 잘게 간 쇠고기로 국물을 내어 의 머릿골과 등골을 넣고 끓이는 것이다. 하지만 꾀돌이가 무슨 수로 골탕을 끓이겠어? 한 번도 본 적도, 먹어 본 적도 없는데 말이야.

그래도 꾀돌이는 화가 잔뜩 난 박 대감에게 살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골탕을 진하게 끓이느라 시간이 더디 걸리는 것이니 좀 있으면 맛있는 골탕을 드시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골탕이 다 끓여졌다.

“대감마님, 골탕 대령했습니다.”

박 대감은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맛도 제대로 못 느낄 정도로 단숨에 후루룩 국그릇을 비웠다.

그런데 잠시 뒤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와 서둘러 뒷간으로 갔다.

“이런, 아까운 골탕을 설사로 다 내보내네. 아이고.”

박 대감은 뒷간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다시 엉덩이를 쥐고 뒷간으로 어기적어기적 가야 했다.

‘골탕을 끓이라기에 곯은 고기로 끓였지.’

꾀돌이는 속으로 고소해 했다.

‘겉으로는 멀쩡하거나 속으로 남모르는 큰 손해를 입게 되어 곤란을 겪는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골탕 먹다’는 ‘곯다’에서 온 말이다.

그런데 ‘곯탕 먹다’라고 하지 않고 ‘골탕 먹다’라고 한 것은 음식 ‘골탕’과 소리가 비슷하고, ‘먹다’라는 말은 ‘당하다’, ‘입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꿀 먹은 벙어리**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지.’

돌이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풍날이다. 아까 엄마랑 과자, 초콜릿, 사탕 등 돌이가 좋아하는 것을 잔뜩 사서 내일 가지고 갈 배낭에 담아 두었는데, 그것들이 눈앞에 어른거려 그냥 잘 수가 없었다.

돌이는 살금살금 마루로 기어 나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배낭 속에 손을 넣어 초콜릿을 꺼내서는 크게 한 입 베어 먹었다. 그때 마침 문단속을 하러 나온 할아버지가 돌이를 보고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돌이가 무얼 그리 맛있게 먹나. 음, 꿀 먹은 벙어리가 됐나 왜 말이 없니?”

돌이는 간신히 초콜릿을 삼키고는 대답했다.

“할아버지, 사실은 꿀을 먹은 게 아니고 초콜릿을…….”

“흐흠, 그 말은 네가 진짜 꿀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는 돌이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옛날에 꿀을 무척 좋아하는 한 벙어리가 있었지. 아내가 밖에 나간 사이 꿀을 너무 먹어 배탈이 났는데, 아내가 돌아왔을 때 배가 아프다며 꿀단지를 가리키자 아내는 꿀이 먹고 싶어 그러는 줄 알고 또 꿀물을 타 왔단다. 벙어리는 그게 아니라고 손짓 발짓을 했지만 아내는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벙어리는 속으로 끙끙거리다 몇 날 며칠을 앓아눕고 말았단다.”

“할아버지, 그럼 저는 초콜릿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니까 아까는 ‘초콜릿 먹은 벙어리’였네요.”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남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거나 어떤 일을 알면서도 말을 하지 못할 때 돌이 할아버지 이야기 속의 벙어리 같다고 하여 ‘꿀 먹은 벙어리’라는 말을 쓴다.

**꿩 대신 닭**

일요일, 돌이는 아빠와 함께 폐품을 활용하여 만들기 숙제를 했다.

빈 깡통으로 공룡을 만들고, 헌 양말에다 다 쓴 공책 겉장을 찢어 넣어 귀가 커다랗고 빳빳한 토끼도 만들었다.

이번에는 고무풍선을 불어 닭의 몸통을 만고 구멍 난 빨간 고무장갑으로 붉은 볏을 만든 다음 알록달록한 종이 날개를 붙이려는데 그만 풀이 떨어졌다.

“아빠, 풀이 다 떨어졌으니 이제 그만해요.”

“어차피 못 쓰는 물건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남기지 말고 다 만들어 버리자. 풀만 있으면 되잖아.”

아빠는 부엌으로 가 접시에다 밥 한 숟가락을 담아가져왔다.

“웬 밥이에요?”

돌이가 밥알을 잘게 짓이기고 있는 아빠에게 물었다.

“먹다 남은 밥으로 밥풀을 만들려고. 꿩 대신 닭이지!”

“꿩 대신 닭이라고요?”

돌이는 밥풀로 닭 날개를 붙이면서 물었다.

“치킨 집은 많은데 꿩고기 파는 데는 없는 걸 보니 닭보다 꿩이 더 귀하고 좋은가 보죠?”

“글쎄, 아빠도 꿩고기를 못 먹어 봐서 어느 게 더 좋은지 모르겠다만, 옛날에는 떡국 끓일 때 꿩고기로 국물을 우려냈단다. 꿩은 사냥을 해서 잡아야하니 쉽게 구할 수가 없었지. 꿩을 못 구한 집에서는 대신 집에서 기르던 닭을 잡아 국물을 우려내 떡국을 끓였단다.”

“그래서 ‘꿩 대신 닭’이라고 했군요?”

“그래. 바로 그 말이 지금은 적당한 사람이나 물건이 없을 때 그만은 못하지만 그와 비슷한 걸 가리키게 된 거란다.”

밥풀 덕분에 닭이 훌륭하게 완성되었다. 돌이가 말했다.

“아빠, ‘꿩 대신 닭’은 옛날 얘기잖아요. 이건 어때요? ‘풀 대신 밥풀’!”

**꿔다 놓은 보릿자루**

연산군은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술과 놀이에만 빠진 임금이었다. 임금이 백성을 돌보지 않자 나라는 점차 어지러워졌다. 보다 못한 박원종, 성희안 등 몇몇 신하들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잡고자 큰일을 꾸몄다.

큰일을 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 모두 박원종의 집으로 모였다. 모두 모이자 성희안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돌아가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도 하며 일이 잘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모두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구석에 앉은 한 사람만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였다. 하지만 달빛도 없고 촛불도 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성희안은 가만히 모인 사람들을 세어 보았다. 놀랍게도 모이기로 한 사람보다 한 명이 더 많았다. 깜짝 놀란 성희안이 얼른 박원종에게 귀띔을 했다.

“박 대감, 염탐꾼이 들어와 있소.”

박원종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염탐꾼이 있다면 내일 벌이기로 한 일이 물 건너갈 것은 물론이고 여기 모인 사람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원종은 눈을 크게 뜨고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았지만 아무리 살펴도 염탐꾼처럼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성 대감, 대체 누구를 보고 그러시오.”

성희안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한 사람을 가리켰다. 성희안이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던 박원종은 껄껄 웃었다.

“그건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내일 있을 큰일을 위해 꿔다 놓은 보릿자루요.”

정말 자세히 살펴보니 보릿자루였다.

“허허, 꿔다 놓은 보릿자루를 사람 대접하다니…….”

그 뒤로 모임에서 말을 하지 않고 한쪽에 앉아 그저 듣고만 있는 사람을 ‘꿔다 놓은 보릿자루’라고 부르게 되었다.

**미역국 먹다**

조선 시대 말기에는 나라에 큰일이 많았다. 섬나라 일본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일본 군대가 조선을 지켜 준다면서 군대를 해산시킨 것도 그 큰일 가운데 하나였다.

“요즘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어?”

“우리 군대를 해산시킨대.”

“뭐야? 군대가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우리 군대가 해산된다는 소식을 놓고 수군거렸다. 돌이는 그 얘기를 듣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다.

“해선, 해산이래요!”

“뭐? 누가 아이를 낳았니?”

우물가에서 미역 줄기를 씻고 있던 엄마가 물었다.

“아니, 그 해산이 아니라 우리 군대가 해산된대요.”

“뭐라고?”

방에서 나오던 아빠는 깜짝 놀란 얼굴로 넋두리처럼 한마디 했다.

“미역국은 졸지에 우리 군인들이 먹겠구먼.”

“미역국을 우리 군인들이 먹다니요?”

엄마와 돌이가 눈이 휘둥그레져 아빠를 바라보았다.

“군대 해산도 해산이니 미역국을 먹는 거지.”

아이 낳는 것을 해산이라고 하고, 아이를 낳은 산모는 미역국을 먹는다. 결국 돌이 아버지가 한 말은, 군대가 해산되는 바람에 군인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음을 산모들이 미역국을 먹는 풍속에 빗댄 것이다.

그러던 것이 차츰 뜻이 변하여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도 ‘미역국 먹었다’라고 하게 되었다. 아마 미역이 미끈미끈해서 미끄러지기 쉽다는 것과 군대가 해산되어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실을 연관 지어 그런 뜻을 생각해 낸 것 같다.

**바가지 쓰다**

우리나라가 서양의 영향으로 근대화가 되던 개화기 이후, 중국에서 ‘십인계’라는 노름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 새로운 노름에 정신이 팔려 많은 돈을 잃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자, 번호를 알아맞히기만 하면 건 돈의 열 배를 드립니다.”

노름꾼이 바가지 열 개를 뒤섞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7입니다. 7이 적힌 바가지를 맞히면 무조건 열 배를 드립니다.

노름꾼이 7이 적힌 바가지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는 바로 뒤집어서 다른 바가지들과 빙빙 섞었다.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던 사람들은 눈짐작으로도 7이 쓰인 바가지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난 여기에 걸겠소.”

어떤 사람이 네 번째 바가지에 돈을 걸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네 번째 바가지와 여섯 번째 바가지에 돈을 걸었다.

“더 없습니까?”

노름꾼은 또 돈을 걸 사람이 없는지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거듭 물었다. 더 이상 반응이 없자 노름꾼은 네 번째 바가지를 뒤집었다.

“짜잔, 어이구, 애석하군요. 꽝입니다!”

노름꾼은 너스레를 떨며 여섯 번째 바가지도 뒤집었다. 이번에는 5가 쓰여 있었다. 결국 아무도 맞힌 사람이 없어 노름꾼은 사람들이 건 돈을 모조리 쓸어 담았다.

“자, 다시 돌립니다. 이번에는 3입니다.”

‘바가지 쓰다’를 바로 이 십인계에서 나온 말이다. 십인계는 1부터 10까지 숫자가 적힌 바가지를 알아맞히라고 한다.

만약 숫자를 맞히면 숫자를 맞히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까지 가질 수 있지만, 못 맞히면 노름판을 이끄는 사람에게 돈을 몽땅 잃게 된다. 그래서 이처럼 손해를 보는 것을 가리켜 ‘바가지 쓰다’라고 하게 되었다.

**시치미를 떼다**

“이 매는 내 거야.”

“무슨 소리야? 이건 내 매야.”

매 한 마리를 두고 돌이와 동이가 싸우고 있었다.

“또 싸우는거야?”

같이 매 사냥을 나온 솔이가 옆에서 한마디 했다.

매 사냥이란 길들인 매를 데리고 사냥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냥감이 어디 있는지 많이 알려 주는 훌륭한 매를 탐낼 수 밖에 없다. 매들은 생김새가 비슷해 얌체들이 남의 좋은 매를 자기 매라고 우기는 바람에 종종 싸움이 나곤 했다.

“그러지 말고 매에 이름표를 달면 어때? 이웃 마을에서도 다 이름표를 다는데 그 이름표를 시치미라고 부른다고 하더라.”

솔이는 싸우고 있는 돌이와 동이에게 말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돌이와 동이도 참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나 돌이와 동이, 송이는 다시 매 사냥을 나왔다. 물론 이번에는 쇠뿔로 얇게 만든 이름표를 매에 하나씩 붙들어 매고서 말이다.

“시치미만 보면 누구 매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이젠 싸울 일 없겠네!”

솔이가 흡족한 표정을 짓자, 돌이와 동이도 맞장구치며 자기 매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매 사냥을 시작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돌이와 동이가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내 매야!”

“시치미를 뗀다고 누가 모를 줄 알아? 이건 내 매라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동이가 돌이에게 소리를 질렀다. 동이 매를 탐낸 돌이가 얌체같이 동이 매의 시치미를 떼고는 자기 매라고 딱 잡아뗀 거였다. 솔이는 두 사람이 한심하다는 듯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이렇게 해서 ‘시치미를 떼다’라는 말은 알고도 모르는 척 딱 잡아떼거나, 억지로 우길 때 쓰는 말이 되었다.

**감초**

“의원님, 왜 약을 지을 때마다 감초를 넣으십니까? 그까짓 감초는 별다른 효능도 없다는데…….”

그러자 의원님은 돌이 앞에 약사발 두 개를 내밀었다.

“이게 웬 약입니까?”

“이게 다 네 머리를 좋게 만드는 약이니라. 어서 죽 마시거라.”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요?”

돌이는 금세 울상이 되었다.

“아이고, 써. 의원님, 도대체 이 약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씁니까요?”

“어허, 머리를 좋게 하는 것이래도. 아무 소리 말고 나머지도 마시거라.”

돌이는 세상에서 이렇게 쓴 약을 처음 먹어 본다. 싫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라니 꾹 참고 먹을 수 밖에. 그런데 이번에는 맛이 달랐다. 오히려 달짝지근한 맛이 났다.

“먼젓번 약이나 지금 금방 네가 먹은 약이나 다 똑같은 약이니라. 단지 나중 약에다 감초를 조금 넣었을 뿐이지.”

돌이는 눈이 둥그레져 의원님을 바라보았다.

“아하, 약이 너무 쓰니까 감초를 넣는 거군요.”

“허허, 그걸 깨달은 걸 보니, 벌써 머리가 좋아진 모양이구나.”

원래 감초는 쓴 약을 조금이라도 먹기 좋게 하려고 넣는다. 자연히 한약에서 감초가 빠지는 일이 없다. 감초는 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약재는 아니지만 없으면 안되는 약재인 것이다. 주인공의 연기를 돋보이게 해 주는 보조 연기자라고나 할까.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감초’라고 한다.

또 ‘약방의 감초같이 끼어든다’라는 말은 어디든 빠짐없이 참견하거나 나선다는 뜻이다.

**점심**

해가 벌써 머리 위로 떠올랐다. 아빠와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곡괭이질에 여념이 없었다. 돌이는 꾀가 나서 슬그머니 그늘이 있는 나무 밑으로 갔다.

“돌이가 힘든 모양이구나.”

엄마가 돌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는 힘차게 곡괭이를 내리찍었다. 엄마도 힘이 들어 손으로 허리를 두드렸다. 그것을 본 아빠가 곡괭이를 내려놓고 허리춤에 찬 베수건으로 땀을 씻었다.

“여보, 우리도 좀 쉬었다 합시다.”

아빠와 엄마가 돌이가 앉아 있는 나무 밑으로 왔다.

“꼬르륵!”

돌이의 배에서 소리가 났다.

“이런 돌이가 배고픈 모양이구나. 저녁 먹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아빠가 말했다.

“꼬르륵!”

이번에는 더 큰 소리가 들렸다. 아빠 배에서 나는 소리였다.

“돌이만 배고픈게 아닌 걸요.”

엄마가 웃으며 옆에 놓인 바구니에서 삶은 감자를 꺼냈다.

“자, 점심이나 하세요. 돌이도 어서 먹거라.”

아빠와 돌이는 삶은 감자를 우걱우걱 먹기 시작했다.

‘점심’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먹는 식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옛날에 왕가에서는 하루에 세 끼를 먹었지만 평민들은 두 끼만 먹었다. 하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일을 하면서 아침과 저녁 사이에 배가 고파지자 아침에 먹다 남긴 것을 간단하게 먹기 시작했다.

‘마음’에 ‘점’을 찍을 만큼이라도 먹어 배고픔이나 면하자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 사이에 먹는 식사를 ‘점심’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